"한기총, 이단과 관계 단절하라"

주요 10개 교단 총무·이대위원장 입장 발표

통합, 고신, 백석, 대신, 기하성(여의도측·통합측), 기성, 합신, 예성, 개혁 등 10개 교단 총무와 이대위원장들은 지난 13일 입장을 발표, '한기총 사이비이단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이단 대책에 책임을 충실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박중선 목사의 이단옹호 행각과 금품 수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이단, 사이비성, 불건전한 운동'으로 규정된 류광수(다락방총회)를 영입한 개혁총회(조경삼측)의 한기총 회원 자격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한기총이 교단들의 연합기구로서 소속 교단의 결의를 존준하는 것이 근본정신임을 언급하면서 통합과 합신에서 '경계, 주의'를 결의한 장재형 목사는 WEA 총회 준비에서 배제돼야 하고, 책임있는 교단과 신학자, 전문가, 실무자들에 의해 준비하고 개최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 '한기총이 장재형과 변승우의 이단성 해제를 결의한 일이 없음'과 '한기총 질서확립대책위에서 통합측 이대위원장 최삼경 목사를 이단이라고 발표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마땅히 취소돼야 할 것'을 천명했다.

10개 교단들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기총은 교인들을 이단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한기총은 속히 이단과의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5일 가진 주나임선교회 주최, 자선음악회.

"장애 딛게 하신 주님께 드리는 영광의 찬양"

제8회 자선음악회, 장애인들 뜨거운 찬양 감동 선사

"내 사모하는 주님 이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유롭지 못한 몸으로 최고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장애우들의 모습은 그들을 지켜보는 이들로 하여금 성탄의 절기에 이 땅에 예수 오심의 의미, 모든 영혼들로부터 찬양 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뜻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회선교단 주나임선교회(회장 이해영 목사)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상도성결교회에서 마련한 제8회 자선음악회에는 장애우들이 무대에 서서 자신이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찬양을 드리는 모습이 청중의 마음에 감동을 전했다.

1부 예배는 정승훈 목사(성산교회)의 사회로 김세진 목사(후암배합교회)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사장 이신일 장로(상도교회)의 인사에 이어 박권배 목사(상도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2부 공연은 CCM 찬양사역자 최인혁 집사의 '주께서 말씀하신 그곳' '주님 주신 삶' 등 뜨거운 찬양이 이어졌고, 3부에는 장애우들이 무대에 오르며 좌중을 사로잡았다.

뇌성마비인 임성준 집사(소망의 집)는 복음성가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실력자로 감미로우면서도 힘 있는 목소리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 사모하는 주님'을 찬양했으며, 이어 생후 8개월 때 뇌성마비가 발병해 전신 마비로 살아온 엄일섭 집사는 93년부터 코로 키보드를 연습해 18년 동안 닦아온 실력을 이날 뽐냈다. 단음으로 연주한 '약한 나로 강하게'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등은 어떤 연주보다 강한 감동을 선사했다.

서울 북지방 사모 중창단의 '해같이 빛나리'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나임 선교회 장애인 자조모임인 하모니의 '그 사랑 알고 있나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등 은혜로운 찬양이 깊은 밤을 아름답게 수놓았다.

주나임선교회는 장애인들이 편히 쉬며 맘껏 기도할 수 있는 쉼터인 '즐거운 집' 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매년 자선음악회를 가져왔다.

이사장 이신일 장로는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때, 한 해의 마지막 축복의 달에 우리들의 마음과 마음들이 장애를 수용하고 좌절하지 않으며 꿈과 소망 중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을 통해 위로가 된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애기봉과 평화·통일전망대 성탄 점등 올해 취소

군선교연합회(이사장 곽선희)와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가 전방 3곳에 설치키로 했던 성탄 트리 점등을 하지 않기로 20일 최종 결정했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인한 국내외 정세를 감안, 전방 성탄 트리 점등식을 유보해 달라는 정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애기봉에, 군선교연합회는 평화전망대와 통일전망대에 오는 23일 성탄 트리를 설치하고 내년 1월 6일까지 보름간 불을 밝힐 계획이었다.

다문화·새터민 가정과 함께 하는 성탄 음악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양 일치위원회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5일 오후 4시 여의도 KBS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성탄음악회'를 갖는다.

NCCK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마련하는 성탄음악회는 1999년 정·재계 및 종교계 주요 인사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초청한 가운데 처음 열려 개신교와 천주교의 일치된 모습을 통해 한국 사회에 만연한 갈등의 벽을 허물고 화합을 이루고자 하는 취지로 개최돼 왔다.

이번 공연에는 한국이 낳은 천재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과 피아니스트 지용, CCM계 최고의 디바 소향 등이 출연한다.

한국대학생선교회 학생들이 서울 전역에서 연탄 배달 봉사를 실시했다.

"겨울 추위, 뜨거운 연탄으로 녹이세요"

한국CCC, 15개 가정에 연탄 4,500장 전달 봉사

한국대학생선교회(대표 박성민 목사, 한국CCC)는 겨울을 맞아 추위에 떨고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 제4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운동을 지난 21일 전개했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 운동(변형윤 이사장)과 함께 한국CCC 청년대학생 230여 명이 서울 전역에서 봉사활동을 펼친 이번 행사는 오전 9시 부암동 CCC 본부에서 출정식을 갖고 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에 임했다.

이들은 한 가구당 300장씩 총 15가구에 4,500장의 연탄을 전달했다.

한편 한국CCC는 이에 앞서 지난 19일 부암동 본부에서 조장들을 초청해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연탄나누기 봉사에 참여한 어온유 학생(명지대 아랍지역학과 3년)은 "작년 봉사 당시 어른들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도우러 왔다는 것도 잊고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며 참여 이유를 밝혔다.

"연대 교단파송이사제 회복하라"

연세대 교목 5인 성명 통해 입장 밝혀

연세대학교 재단법인 이사회(이사장 방우영)가 정관변경을 통해 교단추천 이사를 폐지시킨 것과 관련해 연세대 교목들이 지난 13일 이사장 앞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박정세, 박명철, 한인철, 정종훈, 이대성 목사 등 연세대 교목들은 이사회가 정관 변경을 통해 한국기독교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배제시킨 것에 대해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위해할 수 있는 매우 걱정스러운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대학의 운영에 대해 이사회가 행사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교계인사의 대폭 축소는 연세대학교의 기독교적 정체성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단파송이사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연세대학교의 설립에 기여한 세계교회와 한국교회의 연합정신이 반영된 것으로서, 연세대학교의 기독교 정신을 보장케 하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 왔다"며 "이사회는 연세대학교의 정체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연세 구성원들과 학교 유관기관의 의견청취와 공론화 그리고 합의의 과정 없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현재의 교단파송이사제도가 그 본래의 뜻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해당 교단들 역시 연세대 이사파송과 관련하여 새롭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에 연세대 교목들은 이사회에 교단파송이사제도 조항을 회복할 것과 이사 파송 교단에도 학교와 교단 간의 유대강화, 재정적 지원, 전문 식견을 갖춘 이사 파송 등을 촉구했다.

외환은행나눔재단, 한국YWCA에 후원금 전달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와 외환은행나눔재단(이사장 래리 클레인)은 지난 16일 YWCA 강당에서 지구시민 건강마을 만들기 자원 활동 프로젝트 지원사업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외환은행나눔재단의 후원을 통해 2012년까지 한국과 인도에서 자원활동 프로젝트 '인도의 마을에서 여성의 행복을 외치다' 지원사업을 펼친다. 리더십교육을 통해 한국과 인도 젊은 여성 리더(한국 10명/인도 20명)를 양성하고, 보건 자원활동, 컴퓨터 및 문화교육 자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중국제교류재단, 삼자교회와 강단교류

오정현 대표회장 중국 해정·남원교회서 집회 성료

15일 해정교회에서 가진 집회.

한국과 중국교회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류와 상호 협력을 위해 지난 6월 발족한 한중국제교류재단(이사장 박종순, 대표회장 오정현)은 지난 14일부터 3박 4일 동안 중국 북경에서 삼자교회 강단교류 사역을 가졌다.

15일 저녁 6시 30분에 시작된 해정교회(오위경 목사)에서의 집회는 영하 8도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북경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과 유학생 그리고 일반성도 등 1천여 명 가까운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 목사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는 중국의 청년들을 향한 비전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경제적 동반자를 넘어 영적인 동반자로서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이를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복음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삶이 변화되어 사명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나야 한다"고 전했다. 오위경 목사는 "특히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앞으로 교회가 나갈 방향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해정교회는 올해로 교회 설립 111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성도 7천여 명이 출석하고 있는 중국의 대표적 삼자교회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다.

이어서 16일 남원교회(주수운 목사) 성회에서의 뜨거운 아멘 소리와 찬송 소리는 부흥회 현장 모습 그대로였다.

강단에 오른 오정현 목사는 '작은 자들이 가진 꿈'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교회는 절망을 모른다. 교회는 은혜 받는 공동체"라고 전제 한 후 "오늘 이곳에 모인 남원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신실한 삶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주수운 목사는 "목사님이 전해주신 꿈을 가지고 부흥과 열매를 맺는 사명을 이루어나가겠다"는 포부를 전하기도 했다. 남원교회는 현재 매 주일 2천여 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날 집회에는 평일에도 불구하고 7백여 명의 성도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오정현 목사는 "내년이 한중 수교 20주년인데 앞으로 중국의 신학교육과,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한국과 중국의 전체적인 문화교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쓰고, 가능하다면 내년에 중국의 종교성 관계자들을 한국에 초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결대 총장 징계 난항

14일 이사회서 무산, 23일 긴급이사회서 결정될 듯

성결대 총장의 거취 문제가 일단락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고 있다.

성결대 이사회(이사장 조석환)는 지난 14일 오후 1시 이사회를 재림관 8층 회의실에서 개최, 검찰에 기소된 정상운 총장의 징계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하고 1월 12일 다시 이사회를 열어 정 총장의 거취 표명을 듣기로 했다. 그러나 해를 넘기지 않고 12월 23일로 긴급이사회를 열기로 해, 이날 정 총장이 사임 의사를 표명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14일 이사회는 15명과 감사 2명 등 1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의록 낭독 및 총장 징계 건을 놓고 5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전회의록을 받는 문제는 지난 10월 24일 회의가 적법한지 여부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1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사장이 회의를 열지 않아 이사들이 교과부에서 승인받아 진행한 회의여서 받을 수 없다고 이사장을 비롯해 몇몇 이사들이 버텼고, '10월 24일 이사회는 인정하되, 별첨으로 첨부하자'는 선에서 타협, 결의했다.

이어 총장 징계 건에서 대부분의 이사들은 총장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했다. 법인 정관에 '기소 시 직위해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장은 계속 무죄를 주장했으며, 조 이사장도 지난 10월 5일 총장 직위를 해제한 만큼 또다시 징계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어긋난다며 징계를 거부했다.

끝내 총장이 1월 12일 거취표명을 하기로 함에 따라 이날 이사회는 폐회됐으나, 이를 밖에서 지켜보던 교수와 직원들은 '징계 문제를 해결하라'며 회의장을 통제했다. 이 사태는 일부 이사들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 경찰까지 출동해서야 밤 8시경 해산됐다.

성결대 교수와 직원들이 이사회 직전에 재림관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총장 해임을 촉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완성을 위한 그날까지 선교의 일선에 서서 온 성도와 함께 일하겠습니다"

본지는 교파를 아우르는 초교파신문으로서 한국교회 전체를 보는 시각을 폭넓게 하고 있으며, 성경의 복음 사상을 뿌리로 삼아 한층 더 깊이있는 신앙의 성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드러내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당시의 복음을 기록하여 오늘의 우리 손에까지 전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복음 문서 선교는 현대 뿐 아니라 후대까지의 '영적 자산'임을 믿으시고 저희 들소리신문과 함께 하는 '생명이요, 진리인 독자'가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들소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생명을 위하는 일에 더욱 더 헌신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작지만 많은 독자, 회원들이 절실합니다. 구독자는 한달에 4천원, 정회원은 한달에 1만원, 후원회원은 5만원 이상을 감당하시는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신문을 위하여 지극한 헌신을 바치는 운영이사회

이 사 장 백종선 목사(순복음세광교회)	증경이사장 최이우 목사(종교감리교회)	고병수 목사(창곡교회)	김기창 목사(그이름교회)
직전이사장 서종로 장로(신림제일교회)	부 이 사 장 이철재 목사(서울성서교회)	허광섭 목사(창현교회)	라건국 목사(복음영광교회)
초대이사장 이만신 목사(중앙성결교회)	부 이 사 장 문대골 목사(생명교회)	김영제 목사(선교중앙교회)	박영근 목사(서울소망교회)
증경이사장 장자천 목사(신생교회)	이 사 박대훈 목사(청주서문교회)	이윤형 목사(천성교회)	정성수 목사(송파중앙교회)
증경이사장 이병돈 목사(은평교회)	원팔연 목사(전주바울교회)	이월량 목사(세광교회)	유순종 목사(서울신광교회)
증경이사장 송기식 목사(수원성결교회)	고용복 목사(신월동교회)	이기운 목사(평강교회)	이대성 집사(디자인포비 대표)

들소리신문

제1세기의 이상을 펴가는 신문 e-mail:deulsori@chol.com
창간 1977. 4. 3 등록 서울 다 06483(88. 5. 31) 제3종 우편물 (가)급 인가

발행인·편집인 조효근
편집국장 양승록
인 쇄 인 윤형수
발 행 처 들소리신문사
110-460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195-21

총 무 국 3676-3082
기획·광고국 3676-3084
편 집 국 3676-3085
팩 스 3676-3087
·구독료 월 4,000원(년 48,000원)
·국민은행 011-24-0065-759
·농 협 001-12-026163
·지 로 3032172 (예금주:조효근)

* 본지는 주간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